

tbs라디오 「서울속으로 황원찬입니다」 서울옛보기 (목) 11:15~11:25

서울통계로 보는 오늘의 숫자

I·SEOUL·U
서울통계
SEOUL STATISTICS

학생과 부모의 교육인식 차이는?

2018. 03. 01(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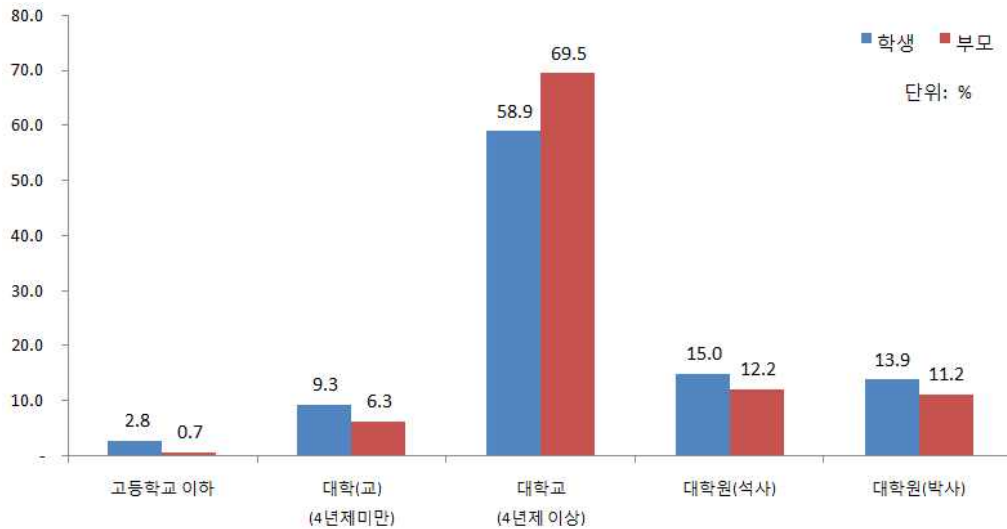
정 보 기 획 관
(통계데이터담당관)

학생과 부모의 교육인식 차이는?

○ 학생과 부모 모두 기대하는 교육수준은 대학교(4년제 이상)

- 2016년 서울의 학생 및 부모들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은 대학교(4년제 이상)가 학생 58.9%, 부모 69.5%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냄
-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받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학생(47.6%)과 부모(44.3%) 모두 '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'가 가장 많았고, 다음은 '능력과 소질 개발'로 나타남

〈기대하는 교육수준(2016년)〉



(단위 : %)

	고등학교 이하	대학(교) (4년제 미만)	대학교 (4년제 이상)	대학원(석사)	대학원(박사)
학 생	2.8	9.3	58.9	15.0	13.9
부 모	0.7	6.3	69.5	12.2	11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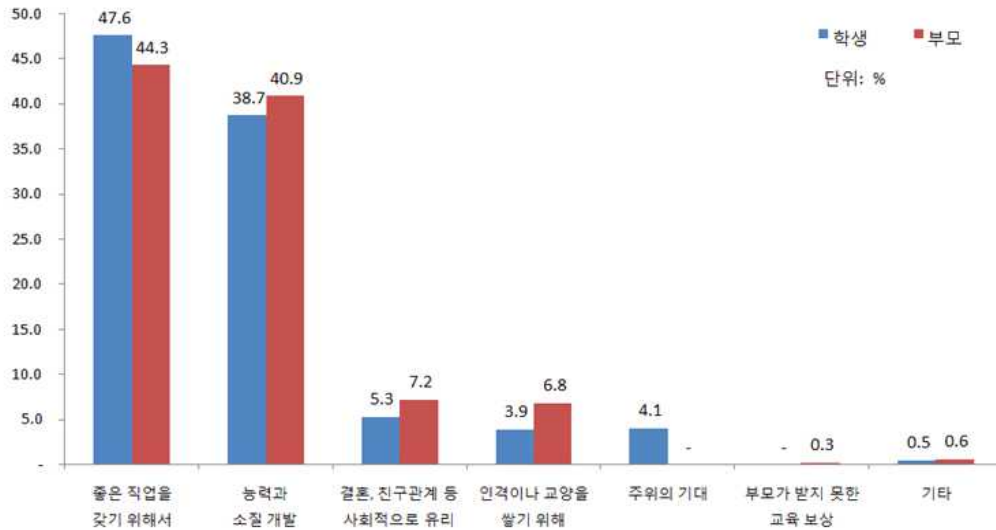
주 : 학생은 휴학생, 재수생 포함
부모는 학생 자녀가 있는 30세이상 인구

〈기대 교육 목적(2016년)〉

(단위 : %)

	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	능력과 소질 개발	결혼, 친구관계 사회적으로 유리	인격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	주위의 기대	부모가 받지 못한 교육 보상	기타
학 생	47.6	38.7	5.3	3.9	4.1	-	0.5
부 모	44.3	40.9	7.2	6.8	-	0.3	0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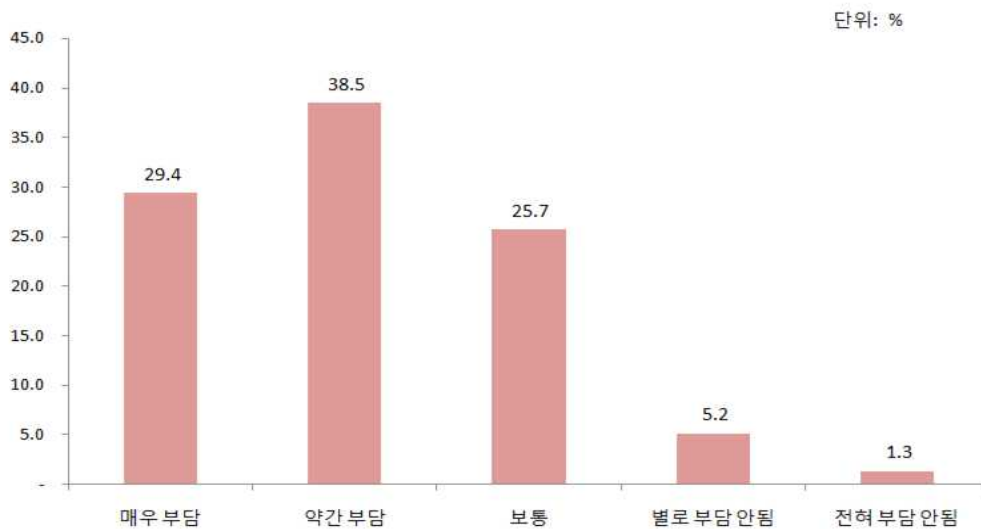
주 : 학생은 휴학생, 재수생 포함
부모는 학생 자녀가 있는 30세이상 인구



○ 자녀교육비가 부담 67.9%, 이중 학원비 등 보충교육비 부담 64.3%

- 2016년 학생자녀가 있는 서울의 67.9%는 자녀교육비가 소득에 비하여 부담 (매우 부담+ 약간 부담)된다고 응답함
- 가구의 자녀교육비 부담으로는 ‘학원비 등 보충교육비’가 64.3%로 가장 높았고, ‘학교 납입금’에 대한 부담도 29.7%로 나타남

〈자녀교육비에 대한 인식(30세 이상)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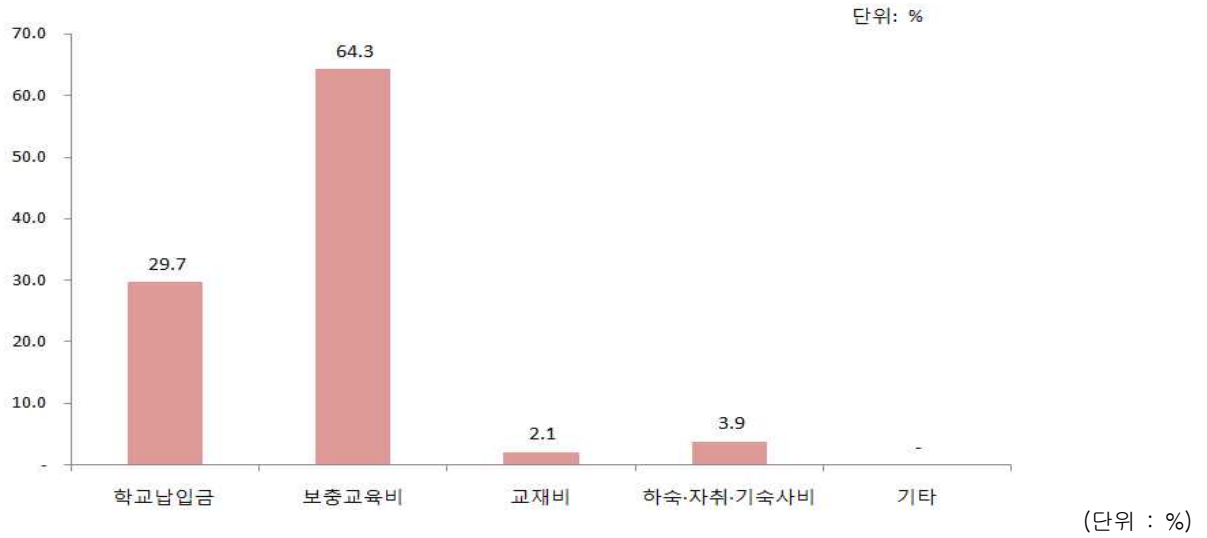


(단위 : %)

	매우 부담	약간 부담	보통	별로 부담 안됨	전혀 부담 안됨
2016년	29.4	38.5	25.7	5.2	1.3

주 : 학생자녀가 있는 가구주

〈자녀교육비 부담 요인(30세 이상)〉



	학교납입금	보충교육비	교재비	하숙·자취·기숙사비	기타
2016년	29.7	64.3	2.1	3.9	-

주 : 학생자녀가 있는 가구주 중 자녀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람
 학교납입금(수업료, 학교운영위원회비, 기성회비 등), 보충교육비(학원비, 학교보충교육비, 개인 및 그룹과외비 등),
 교재비(책값, 학용품값 등)

○ 여건이 허락된다면 자녀유학 원하는 학부모 62.3%

- 2016년 서울의 학부모 62.3%는 여건이 허락된다면 자녀를 다른 나라로 유학 보내기를 원한다고 응답함
- 자녀유학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‘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’가 46.3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은 ‘자녀의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’가 20.6%로 나타남
- 경쟁위주교육이나 대입제도 등 한국의 학교교육 제도가 싫어서 유학보내기를 원하는 경우도 19.9%로 나타남

〈자녀유학에 대한 견해 및 이유(30세 이상)〉

(단위 : %)

	소계	자녀유학 원함								자녀 유학 원하지 않음	잘 모르겠음
		한국의 학교교육 제도가 싫어서	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	외국어 습득에 용이하므로	외국의 학력을 더 인정 하는 풍토 때문	자녀의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	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	기타			
2016년	62.3	100	19.9	46.3	7.3	4.5	20.6	1.0	0.3	27.8	10.0

주 : 주된 응답이며, 학생자녀가 있는 부모 중 자녀유학을 원하는 사람임

※ 자료출처 : 통계청 「사회조사」